

形態와 意味의 同形的(非恣意的) 分析理論과 그 適用*

——韓·佛語의 名詞化(連結-/終結化)를 中心으로——

朴 亨 達

(言語學科 教授)

서 론

본 研究의 方法論적 土臺와 固有한 方法論의 定立 :

Guillaume의 心理/精神力學論(Psychomechanics of Language)에서 말하는 F(형태)와 M(의미)사이의 역방향적 思考運動 形態(incidence)(이하 ‘同形’으로 통일함)의 기본가설에서 시작하되, G.의 心理/精神力學論의 연구 단계를 특징짓는 것이 무엇인가를 규명하고 그 연구 단계를 초월한 보다 상위의 잠재적 단계를 설정하고 거기로부터 출발하여 G.의 ‘구체적’이라고 특정지어지는 연구단계를 재정리 함으로써 ‘상위 단계’와 ‘하위 단계’(G.의 단계)를 연결시킨다. 이렇게 함으로써, G.의 “구체적” 연구단계의 정위치가 명확히 들어난다. 만일 에, 상위단계를 설정하지 않고 G식 구체적 단계의 테두리에서 맴돌게 되면 그러한 연구경향은 지나치게 개별적 사실을 설명함에 그치게 되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그 개별적 사실의 설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초점이 흐려지게 된다. 따라서 G.식 연구단계를 “구체적이면서 추상을 지향하는 이원론적 이상주의”라고 비판하고, 본연구에서와 같이 ‘상위적 잠재적단계’의 연장선상에서 “구체적이면서 그것을 추상과(으로) 混同(착각)한”(뒤 “결론” : “∅잠재[理論] 단계”의 그림 이하 참조) G.식(구체적) 단계를 바라봄이 없이 오직 구체적인 것으로서만 재평가하고, 새 이론을 정립해 나가는 경향도 생겨날 수가 있다.¹⁾

위와 같은 경향을 지양하고 G.식 연구단계의 본질을 파헤쳐서 그 단계를 자리매김함과 동시에 그와 같이 자리매김된 단계를 토대로하여, 보다 상위적, 잠재적 단계를 설정하여, “상위-하위” 단계를 연결시킴으로써, 모든 언어사실의 分析에 기여할 수 있는 하나의 體系를 정립한것이 본 研究의 方法論적 土臺와 본 연구 固有의 方法論이라 할 수 있다.

본 研究의 對象(佛語와 韓語의 名詞化 : 連結/終結化) :

본 연구의 부제에 명시된 바와 같이 본 연구의 대상은, 위에서 결론지은 방법론에 입각하여 그 방법론을 현대 佛語와 현대 韓語의 ‘連結(어미)化’와 ‘終結(어미)化’ 현상을 ‘名詞

* 이 논문은 1991년도 서울대학교 발전기금(선경 학술연구비/S.N.U. Sunkyong Research Fund)에 의한 연구논문임.

1) Maurice Toussaint(1972), ‘Vingt ans après ou Gustave Guillaume et la neurolinguistique analytique’, in *Revue Romane*(VII, 1), Copenhagen, pp.68-89 참조.

化'라는 이름밑에 통일시켜서 관찰 정리한 것이다. 즉 본 연구에서 정립된 이론을 실제언어로 연장(적용)시킨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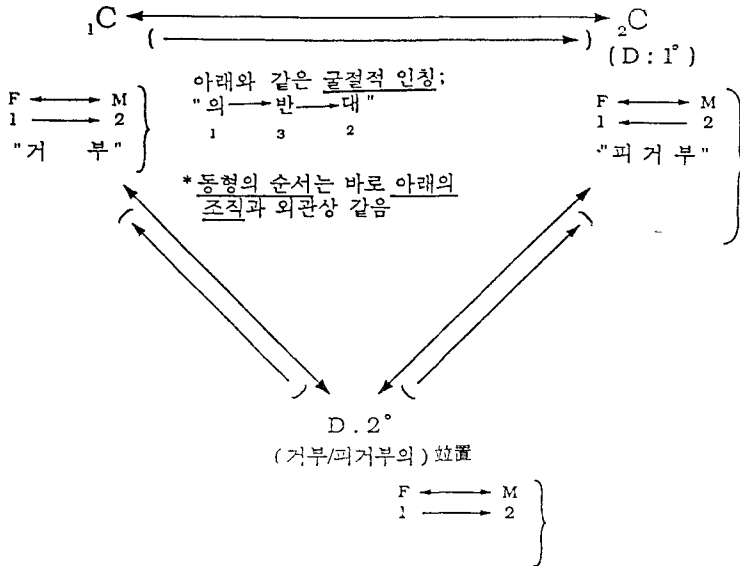
“名詞化”(連結/終結化)란? :

G.의 心理/精神力學論의 출발점이 되는 品詞理論에서 同形の ‘첫째순서’는 名詞이다. 즉 명사가 갖는 意味 내지 質料(matter: 이하 M로 표시함)와 그 形態(form: 이하 F로 표시함) 사이에는 連續性(이하 C로 표시함)이란 관점에서 ‘順位 1’에 해당된다. 佛語의 性, 數, 冠詞와 같은 形態(F)와 名詞(M)사이에는 (예 : une/la femme(여성) : hommes(복수) : le/un matin (관사+명사)) 純粹한 連續性이 입증되어 여타의 요소의 도움이 없이 홀로 形態와 意味(M)의 同形(incidence)이 성립된다. 의미(M)와 형태(F)의 연속성을 →로 표시하면 M→F와 같이 표시된다. 그와 마찬가지로 韓語의 助詞없는/있는 形態(F)와 名詞 사이에서도 위와 같은 순수한 連續적 同形이 성립된다(예 : 밥<많다> 밥<먹는다> ; 밥이/밥을). 반면 形容詞(M)나 動詞(M)는 그 자체의 意味(M)만이 있을뿐 形態(F)는 그 자체 밖에서 즉 명사(F)나 인칭 대명사(F)에서 찾지 않으면 안된다(예 : grand homme/homme marche); 마찬가지로 韓語의 관형사(M)(새, 몇, 어느)나, 형용사(M), 동사(M)는 그가 의지할 형태(F)로서 명사(F)를 요구한다(예 : 새 “집”/그사람 키 “크”다/ 나 그것 “먹”는다). 형태(F)를 의미(M)자체 내에서가 아니라 그 밖에서 찾는다는 점에서 형용사(M)나 동사(M)는, 명사(M)와는 달리 不連續적 同形을 이룬다. 의미(M)와 형태(F)의 不連續性을 ←로 표시하면 F←M과 같이 표시된다.

한편 副詞는, 형용사(M)내지 동사(M)와 명사(F)사이의 同形에 걸린다(예 : très belle maison/l'homme marche vite; 꽃이 곱게 피었다/밥좀 먹게 조용해라). 이 副詞 段階의 同形은, 첫째로 위 두 단계의 同形 : M→F/F←M 보다(F←M에 다시 걸린다는 점에서) 더욱 具體화된 段階이며, 둘째로 위 두 상위관계와 같이 둘로 분석, 구분되지 않고 하나로 나타나는 ‘非分析적 단계’임을 알 수 있다. 달리 말하면 위 두 상위단계의 同形の ‘併置(juxtaposé)단계’라 할 수 있다. M→F/F←M의 병치를 하나로 표시하면 M→F로 표시된다. 위 두 상위단계 중에서 順序 1의 純粹 連續적 同形(M→F)을, 그것이 출발이 되어서 順序 2의 불연속적 同形을 지배내지 연속화 시킨다는 점에서, “거부”하는 형태라 할때, 順序 2는 順序 1에 의해서 “거부되는” 형태라 할 수 있다. 順序 1을 連續 1로, 順序 2를 連續 2로 바꿔서 그 상위성을 나타내서 그림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아래’ 참조).

아래 도식에서 名詞化(連結/終結化)란 어떤 위치(position)의 同形을 말하는가 라는 질문에 해당하는 것이 곧 名詞化(연결/종결화)의 내용이 된다. 아래 도식에서 맨위 원편의 연속1(순서1) 위치가 連續적 名詞化 段階 즉 명사(M)가 그 자체안에 형태(F)를 내유함으로써 직접적으로 그 둘 사이에 連續적 同形이 形成되는 段階(M→F)라면, 맨위 오른쪽의 連

分析적(連續적) 同形的 組織



* 주의 . C₁=연속1/명사단계 · C₂=연속2/형·동단계 · D=불연속/부사단계 ↔ : 분석(연속)적 동형 (사고운동 형태) → : 연속성 ; ↘ ↗ : 불연속성을, 각각 표시함.

續2(순서2) 위치는, 그와는 달리, 의미(M)로서의 형용사/동사가 그 自體안에서가 아니라 그 自體 밖에서 형태(F)를 찾음으로써, 그 둘 사이에는 직접적이 아닌 間接적, 不連續적 同形이 形成되는 段階(F←M)라 할 수 있다. 이 단계(“형용사”/“동사”단계)가 位置1(연속1)의 “명사”단계에 대하여 순서상 位置2(연속2) 단계임은 곧 이 단계가 위치1(연속1)의 直接적 連續적·‘名詞化 段階’에 대하여 間接적·不連續적 ‘名詞化 段階’임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두 유형의 同形 즉: 1) M→F와 2) F←M은 그 첫째 類型1)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잠재적(F) 단계 즉 ‘의미(M)의 도움을 기다리는’ 단계임에 반해서, 그 둘째 類型2)는 구체화된(M) 단계 즉 잠재적 단계를 구체화시킴에 ‘도움을 주는’ 단계라는 점에서, 다시 1)을 “연결적”/“피조동적”이라 부르고, 2)를 “종결적”/“조동적”이라고 부를 수도 있다.²⁾

예컨대, ‘수식-피수식’ 관계에서 名詞化에 ‘역점’을 둔 단계(예: 먹는 것)는 위 첫째 類型1)의 “M(먹<는>: 의미적/종결적/조동적→F(것: 형태적/연결적/피조동적)” 단계의 예라고 할 수 있으며, 形容詞化(冠形化)에 ‘역점’을 둔 단계(예: 먹는 밥)는 둘째 類型2)의 “F(〈먹〉는 〈밥〉: 형태적/연결적/피조동적)←M(먹<는>: 의미적/종결적/조동적)” 단계의 예라고 할 수 있다. 위에서 설명한 논지에 따르면 첫째 類型1)이 ‘直接적 名詞化’ 즉 ‘연결(어

2) ‘連結형태’(forme préconclusive)/‘終結형태’(f. conclusive)의 구분에 대해서는 Guillaume(1973), *Principes de Linguistique Théorique de Gustave Guillaume*, Québec/Paris, p. 198 참조.

미)화'의 예임에 반하여, 둘째類型2)는 '間接적 名詞化' 즉 '중결(어미)화'의 예라고 할 수 있다.

“名詞化(連結化/終結化)”와 그것의 傳統言語學적 觀點과의 差異 :

그러면 M(의미)과 F(형태)사이의 異(逆)方向적 同形 즉 : 1) $M \rightarrow F$; 2) $F \leftarrow M$ 의 존재를 인정하는 Guillaume의 心理/精神力學論적 觀點과 傳統言語學적 觀點과의 차이는 무엇일까? 한마디로 후자는 M(의미)와 F(형태)사이의 '異(逆)方向적 同形の 결여'라고 특정지어 말할 수 있다.

위의 예에서 명사화의 경우건 형용사화(관형화)의 경우건 M(의미 : 형용사/동사 : <먹>는/먹<는>)라는 中心에다 F형태/명사성 : -것 또는 형용사성 : <먹>는 <밥>)을 각각 添加한 것으로 따로 따로 봄으로써, F와 M사이의 異(逆)方向적 同形이 결여된 M중심의 F의 첨가만이 존재하는 '等方向'적 관점이 있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異(逆)方向적 관점에서와 같이 1) $M \rightarrow F$; 2) $F \leftarrow M$ 에서 順序(2) : $F \leftarrow M$ 를 順序(1) : $M \rightarrow F$ 즉 名詞化의 異(逆)方向적 同形の 延長으로 보지않고, 1) 명사화와 2) 형용사화(관형화)를 M(動詞)를 중심으로하여 F(名詞化 要素/形容詞化 要素)들이 각각 따로 따로 모였다고 보는 것이다. 전통문법에서 “명사화요소” 또는 “형용사화요소”(관형형), 그리고 “연결어미” 또는 “중결어미”라는 용어만이 존재하고 그들 용어사이에 오직 意味적인 連結(斷節)만이 存在함은, 이것을 단적으로 나타내 주는 예라고 볼 수 있다. M(의미)를 중심으로 하여 F(형태)를 설명하는 이 等方向적 觀點은, $M(1) \rightarrow F(1)$, $M(2) \rightarrow F(2)$, $\dots M(n) \rightarrow F(n)$ (무한히 계속됨)과 같이 표시될 수 있을 것이다(*뒤 : 註 3 참조).

위에 설명한 바로부터 본 연구에서 다루는 名詞化(連結化/終結化)란 M(의미)중심의, 그것과 F(형태)와의 等方向적 觀點 즉 “ $M(1) \rightarrow F(1)$, $M(2) \rightarrow (2)$, $\dots M(n) \rightarrow F(n)$...”으로 무한대로 나아가는 그러한 관점에서의 名詞化/形容詞化가 아니라, 1) $M \rightarrow F$ /2) $F \leftarrow M$ 과 같이 M(의미)와 F(형태)사이에 인정되는 異(逆)方向적 同形 즉 '名詞化'라는 '하나의' 同形の '連續'으로서의 '名詞化 또는 連結化'/'形容詞化 또는 終結化' 현상임을 분명히 알수가 있을 것이다.

본 론

“名詞化”의 두 段階(“潜在적/一般形態論적 名詞化”와 “實現적/具體적/意味·統辭論적 名詞化”) - :

“名詞化”(連結化/終結化)의 두단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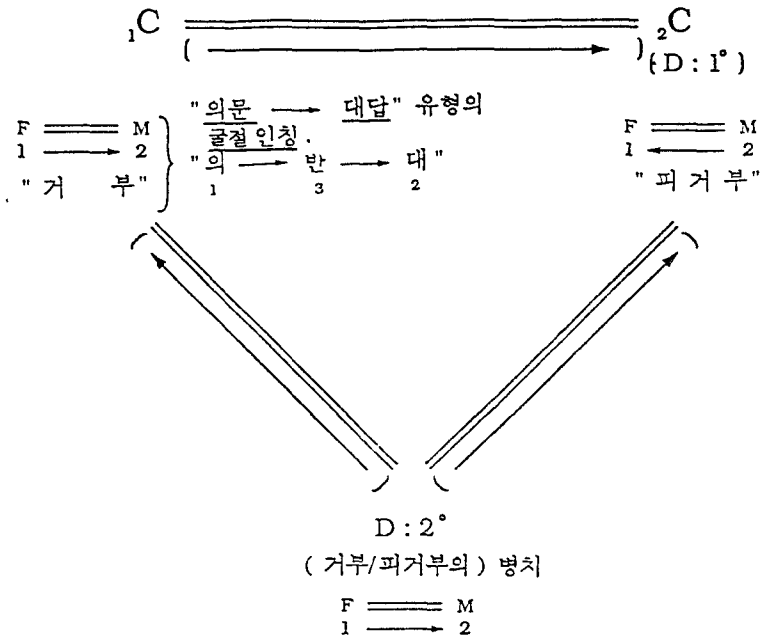
첫째(具體的)段階 : 지금까지 설명해온 異(逆)方向적 觀點에서의 名詞化(連結化/終結化)는 기호로 표시하면 1) $M(\text{의미}) \rightarrow F(\text{형태})$ /2) $F(\text{형태}) \leftarrow M(\text{의미})$ (*엄격히는 ' $M \leftarrow F$ ' : 뒤 '결

론' : "구체 단계" 그림 참조)였다. 그리고 이 단계는 "구체적(의미·통사적)" 단계라고 특정지어질 수 있음은 이미 위에서 간단히 지적한 바 있다. 그러면 이 "구체적(의미·통사적)" 단계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바로 위에서 傳統言語學적 관점을 공식으로 표시하는 마당에서 "M(의미)를 중심으로하여 F(형태)를 설명하는 等方向적 관점"이라 요약한 바 있고 또 그것을 "M(1)→F(1), M(2)→F(2), ...M(n)→F(n)(무한히 계속됨)"과 같이 공식화 한바 있다. 다시 말하면, 이 전통 언어학적 관점이란 "M(의미)를 중심으로하여 F(형태)를 설명하는 恣意的(等方向적)관점"이라고 바꿔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이때 M(의미)란 가장 구체적 단계의 品詞라 할 수 있는 動詞(또는 形容詞)를 말함은 물론이다. 즉 "가장 구체적인 M(의미)로서의 동사/형용사를 중심으로 하여 등방향적/자의적/논리적/첨가적으로 F(형태)로서의 명사와 M(의미)로서의 동사/형용사를 설명함으로써, M(의미)와 F(형태)사이에는 오직 "意味적인 斷絶(恣意性)"만이 있게 되는 것이다.³⁾

이와 대비시켜서, M(의미)와 F(형태)의 異(逆)方向적 "具體적(意味·統辭적)" 段階는 다음과 같이 요약 될 수 있을 것이다.

"가장 구체적인 M(의미)로서의 動詞/形容詞의 데두리 안에서, 그것(M)과 F(형태)로서의 명사를 설명함으로써, M(의미)와 F(형태)사이에는 오직 "形態적(必然적) 同形적 連續

[비 분석적(불 연속적) 同形的 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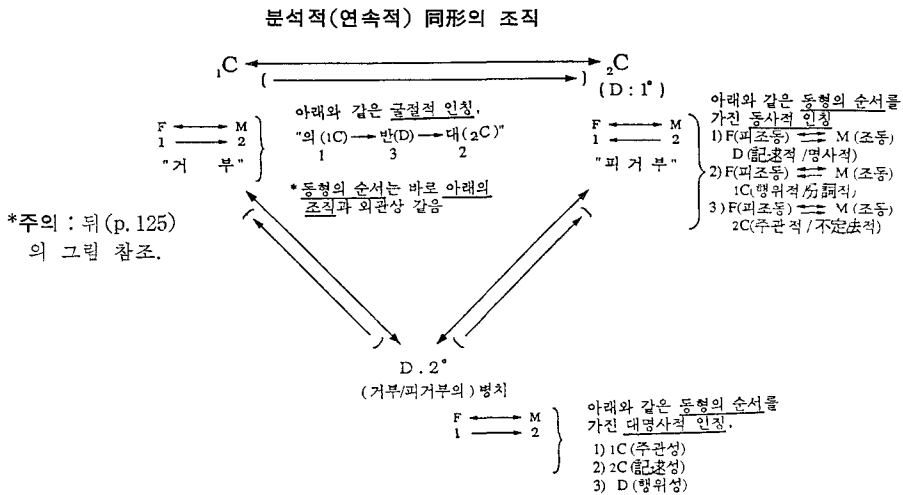


3) 이것은 수학에서 말하는 "狹意의 부분적 순서" <ordre strict partiel>에 해당되는 관점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Jean Claude Chevalier(1978), *Verbe et Phrase*, Éditions Hispanique, p. 12 참조).

단이 있게되는 단계”이다. 이것을 그림으로 표시하면 바로 위와 같다(*주의: “=” 표시는 F와 M이 非分析된 具體(意味・統辭)段階의 同形(incidence) 표시임; 1/2/3: 同形の 순서; 위의 (1) M→F/(2) F←M표시는 “=”표를 사용하고, M를 모두 왼편에 표기 가능함. *→: 연속적 운동; ↖↗: 불연속적 운동 $_1C/_2C/D$: $_1$ 연속/ $_2$ 연속/불연속).

이 단계가 바로 위에서 지적된 바와같이 Guillaume의 “구체적(의미・통사적)” 단계를 ‘再構한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둘째(潛在的/一般形態論的)段階: Guillaume의 “구체적(의미・통사적) 단계를 ‘再構한 단계’ (즉 ‘구체 단계’)를 초월한 ‘잠재적 단계’란 무엇인가? 이는 곧 ‘의문-반문-대답’이라는 ‘언어활동의 기본적 틀’을 출발점으로 하되, 위의 “구체적(의미・통사적)” 단계와 같이 動詞/形容詞를 중심으로 삼지 않고, ‘屈折어미’를 시발점으로 하는 F(형태)와 M(의미)의 異(逆)方向적 同形の 組織을 말한다. 긴 설명을 할 필요없이 위에서 이미 사용된 그림을 다시 이용하여 표시하면 아래와 같다(*↔표시는 “분석적” 同形을 표시함; *→: 연속적 운동; ↖↗: 불연속적 운동; 1/2: 同形の 순서; C=연속, D=불연속을 표시함):



이 潛在적 段階와 대비시켜서, 이미 위에서 사용된 도식을 다시 이용하여, Guillaume의 구체적(의미・통사적) 단계를 ‘再構한 단계’를 표시하면 아래(*p. 125의 그림)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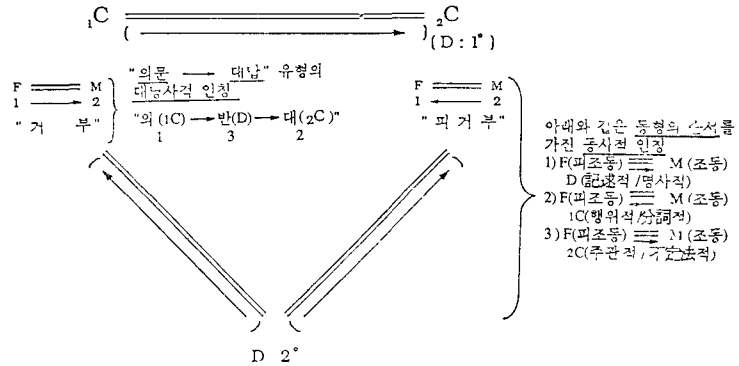
위 그림의 說明: 둘째번의 그림은 본 논문에서 정립된 潛在적(一般形態論적)段階 즉 ‘言語(langue/tongue)’ 단계의 그림이며, 첫번째의 그림은 Guillaume의 “구체적(의미・통사적)” (병치적) 단계를 再構한 단계 즉 ‘言語表現(discours/discourse)’ 단계의 그림이다. 그러면 이 潛在적(一般形態論적) 言語와 實現적(意味・統辭적) 言語表現 사이에서 ‘G.의 단계’를 어떻게 연결 내지 정의할 것인가가 문제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즉: (Guillaume의) ‘具體적 段階’란 精神적인 것(mental)의 物理적인 것(physique)

[비 분석적(불연속적) 同形的 조직]

$M \equiv F$
 $1 \rightarrow 2$

$F \equiv M$
 $1 \leftarrow 2$

$2C$ 가 D 와 분명히 구별되는 위의 分析적 組織과는 달리, 이 非分析적 組織은, 단일에 앞
 “잠재적 同形的 조직”을 전제로 하지 않을 때는, 그들 둘($2C$ 와 D)을 구분치 않는다, 이
 러한 조건에서는, 한편으로는 意味적 優先權(一次적 同形的 順序) ($M \equiv F$)을 ‘主張’
 할 수가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形態적 優先權 ($F \equiv M$)을 ‘主張’ 할 수가 있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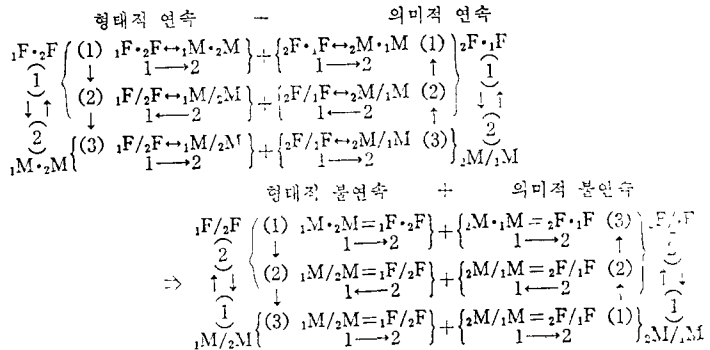
(거부/피거부)의 병치

$F \equiv M$
 $1 \rightarrow 2$

다음과 같은 同形的 順序를 가진 代名詞적人稱* :

1) $1C$ (주관성) 2) $2C$ (記述성) 3) D (행위성)

* 위 同形的 順序의 實質內容은 다음과 같은 “연속” → “불연속”의 “不連續化”로 얻어짐 :
 일반 形態론적 同形的 조직 의미·동사론적 同形的 조직



*주의 : “.” : “연속” ; “/” : “불연속” 표시임 ; 뒤 ‘결론’ : “잠재(잠재)/구체단계” 그림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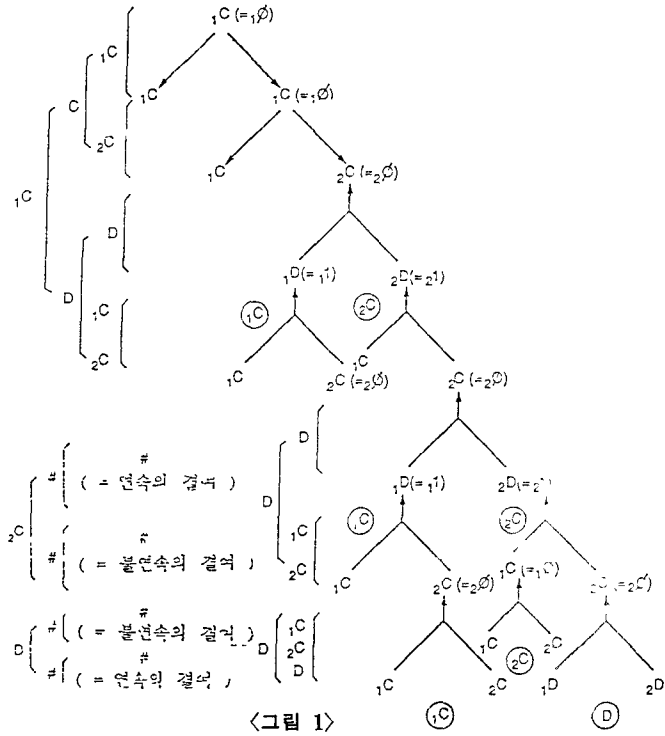
과의 충돌에서(에 대항한 투쟁의), 物理적 사실속에 남은 可視적인 흔적이며, 이 物理적·可視적 흔적은, ‘구체적 사실’에 ‘置重’한 나머지 그것을 “잠재적 言語단계”로(와) 誤認(混同)한 ‘假(pseudo)言語 내지 假言語表現’ 단계이며, 따라서 ‘非可視적·精神적 潛在體로서의 言語’를 전제로 하는 ‘言語表現’으로 ‘再構’ 내지 ‘편입’되어야 한다. 4)

4) 拙稿(1991) : ‘核(形態)과 非核(意味)의 同形的 分析理論의 定立에 관하여’, 人文論叢(26), pp. 134-137에서 “구체적(의미·동사적)” 단계의 公式 (“||” 표시로 된 非分析적/“1”적 <非φ적> 公式)을 먼저 순서로 놓고, 그 다음에 “잠재적(일반형태론적)” 단계의 公式 (“↑” 표시로 된 分析적 “φ” 적 公式)을 그 다음에 배치한 것은, 이러한 취지에서 었음. 또 拙稿(1988), ‘位置言語學과 統辭論’, 人文論叢(20), pp. 175-237 참조.

(I) 일반형태론 (I)

(I) F → M 단계

(1) F → M



<그림 1>

(I) 일반형태론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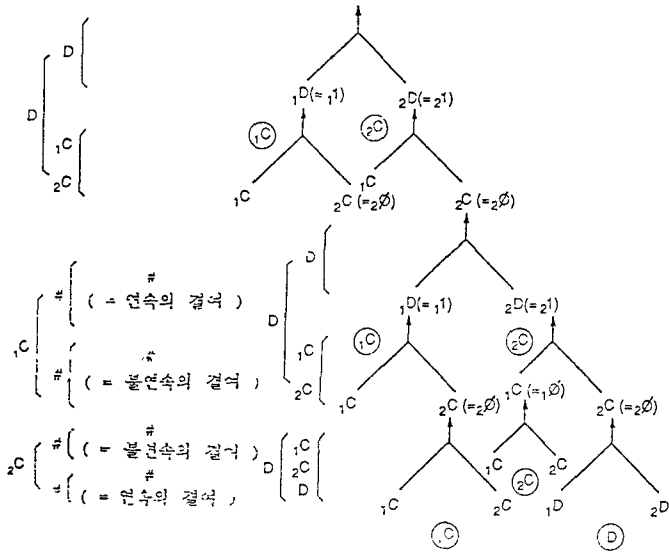
*주의 : 위 그림 ①의 “2D”에 연결됨에 주의.

(II) F → M 단계

(1) F → M

(2) F ← 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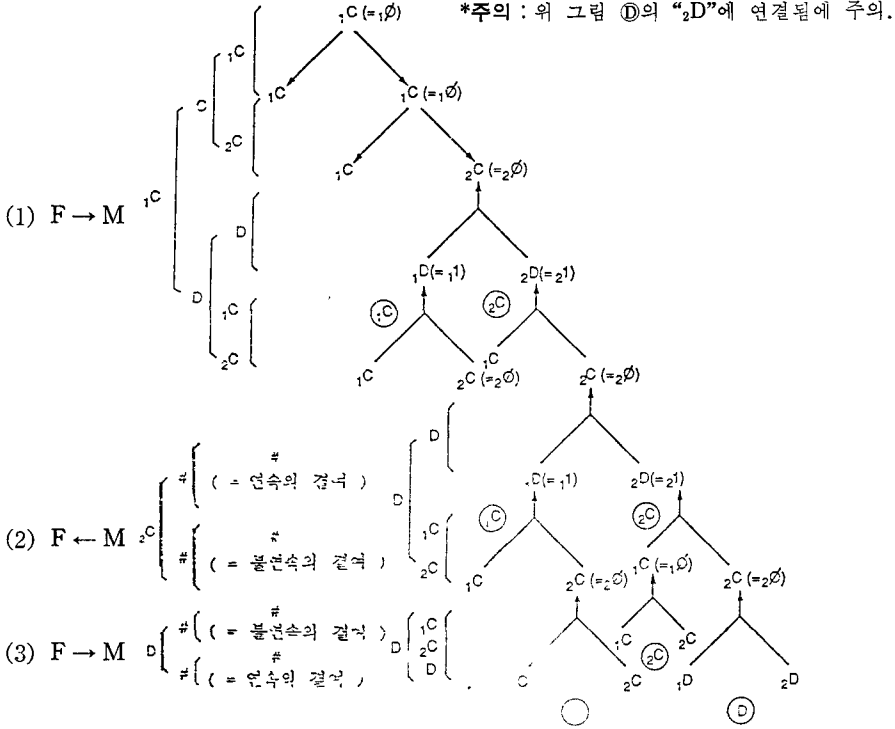
(3) F → M



<그림 2>

(I) 일반형태론 (III)

(III) F → M
단계



<그림 3>

위 두단계의 다른 圖式化- : 위 두 그림을 다시 나무 그림으로 표시하면 보는 바와 같이 정리될 수 있다(*∕\는 ‘연속성/전망성’을 ↑는 ‘불연속성/회고성’을 각각 표시함)⁵⁾.

1) 잠재적/일반형태론적/‘一般→特殊’적 언어 단계 (langue/tongu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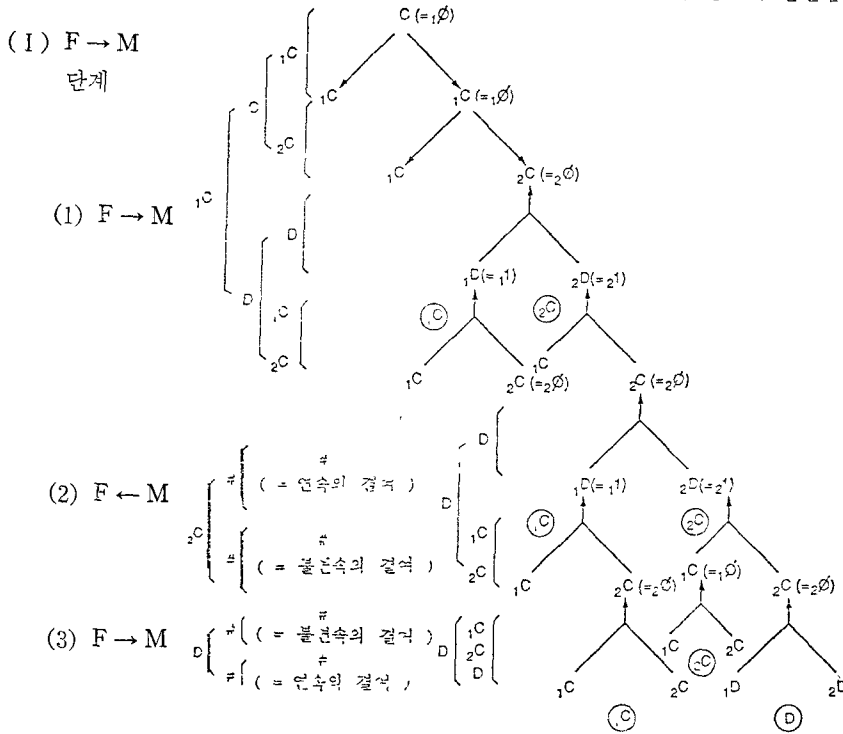
이 단계를 나타낸 위 나무그림은 : 1) 拙稿(1991):pp. 136-137의 公式을, 2) 본 논문의 아래(*韓語의 公式)와 같이 들어서 再表記한 것을 그대로 반영시킨 그림이다. 1)의 公式表記가 “₁C/₂C(₁連續/₂連續)→D(不連續)”라는 ‘大體系의 表記’ 라면 2)의 公式表記는 1)의 大體系의 表記를, 그것이 포괄 내지 암시하는 ‘小體系’까지를 포함 내지 구체화시킨 ‘구체적 表記’이다(*I)/(*II)/(*III) : 大體系; (1)/(2)/(3) : 小體系를 표시함).

형태(F)와 의미(M)의 同形(incidence)을 ‘非恣意的인 同形(synapse/synapsis)’이라는 용어로 바꿔서 쓸 때, 이 同形은 다시 그 자체를 형태(F)와 의미(M)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다. ‘형태(F)로서의 同形’이란 同形을 구성하는 형태(F)가 순서상 언제나 의미(M)보다

5) “疑問(₁C)→反問(D)→대답(₂C)”, 즉 公式으로는 “₁U-(₁∅)→(₂S→₁S)-(∅∅)→₂U”로 표시되는 同形的 조직의, 기계적인 말로의 표현에 관해서는, 拙稿(1991), pp. 129-130 참조.

(II) 통사론(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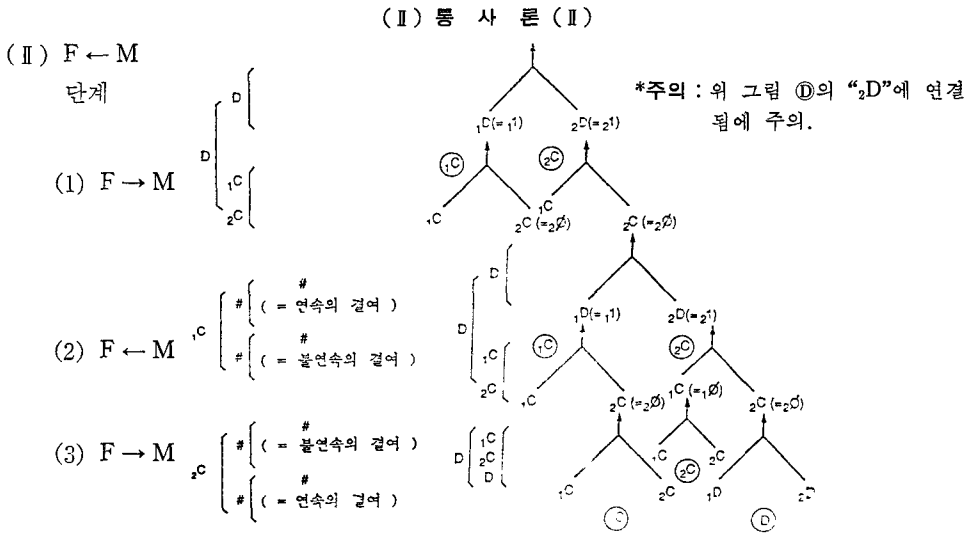
*주의: 위 그림 ⑤의 “ ${}_2D$ ”에 연결됨에 주의.



<그림 5>

‘먼저 位置’에 온다는 ‘同形の 기본적인 틀’ 즉 ‘형태/괄격’을 말하고, ‘의미(M)로서의 同形’이란 그 ‘기본적인 틀/형태’의 ‘실질내용’ 즉 1) ${}_1$ 연속적= ${}_1C$ 적(F→M)이나, 2) ${}_2$ 연속적= ${}_2C$ 적(F←M)이나, 3) 불연속/並置적= ${}_2D$ 적(F→M)이나라는 ‘同形の 의미내용’ 다시 말해서 ‘의미 내용상의 순서’ 즉 위 “1)/2)/3)”의 同形 각각에서 형태(F)와 의미(M)를 연결하는 ‘화살표의 방향에 따르는 순서’ (F<1>→M<2>/F<2>←M<1>)/F<1>→M<2>)를 말한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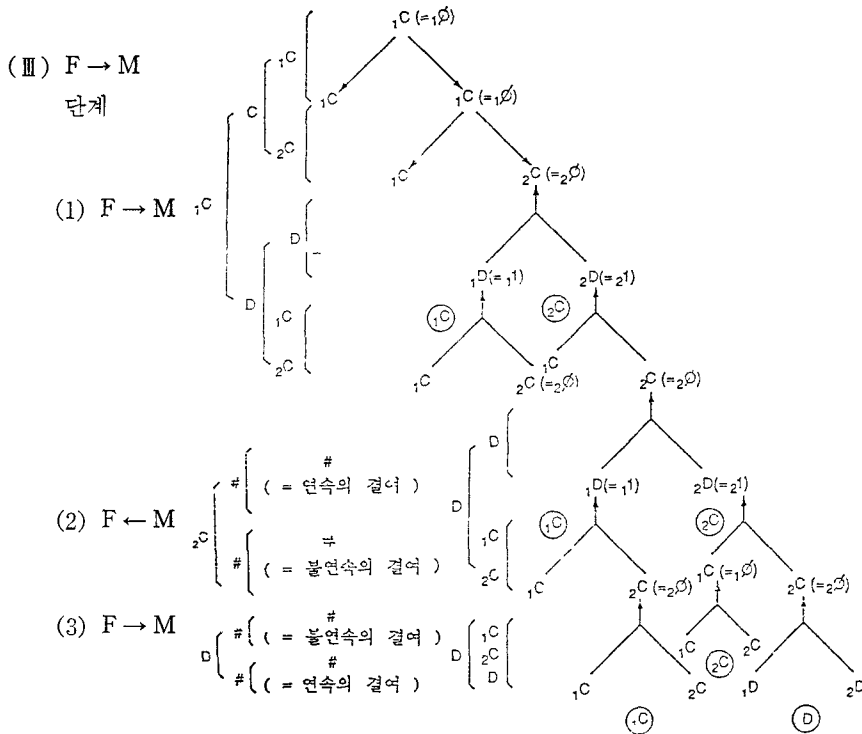
이와 같이 ‘두 갈래’로 나누어진 1) ‘형태(F)로서의 同形’과 2) ‘의미(M)로서의 同形’은, 이들을 더 구체화시킨 ‘小體系’를 예상할 때, ‘大體系’적 관점에서 본 ‘구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이 ‘大體系적으로 보아진 小體系’에 있어서는, 이들 “1)/2)/3)”의 同形을 형태(F)와 의미(M)로 나눈 것을 ‘하나’로 잡아서 이것을 ‘형태(F)/괄격’ 즉 ‘형태적 순서’로 파악하고, 그에 각각 대응되는 ‘실질내용/의미내용상의 순서’를 ‘다른 하나’로 파악할 수가 있다. 이러한 각도에서 보아진 小體系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_1C/{}_2C$ ”의 “/” 표시는 ‘意味的 同形の 順序’안에서의 ‘形態的 順序’를, “ ${}_1C/{}_2C \rightarrow D$ ” 또는 “ $D \rightarrow {}_1C/{}_2C$ ”의 “→”표시는



<그림 4>

(II) 통사론 (III)

*주의: 위 그림 ①의 "2D"에 연결됨에 주의.



<그림 6>

‘意味的 同形の 順序’ 안에서의 ‘意味內容上的 順序’를 가리킴 또 앞 p.125 그림 참조):

(1) 大體系的 ${}_1C(F \rightarrow M)$ 단계를 그것이 포괄하는 小體系 즉:

형태(F)적 同形の 순서 의미(M)적 同形の 순서

즉 형태(F) 즉 의미(M)

$$\begin{array}{l} \textcircled{1} \left\{ \begin{array}{l} 1) {}_1C(F \rightarrow M) \text{ 단계 : } "C({}_1C/{}_2C) \rightarrow D(D \rightarrow {}_1C/{}_2C)"; \\ 2) {}_2C(F \leftarrow M) \text{ 단계 : } "D(D \rightarrow {}_1C/{}_2C)"; \end{array} \right. \\ \textcircled{2} \left\{ \begin{array}{l} 3) D(F \rightarrow M) \text{ 단계 : } "D({}_1C/{}_2C \rightarrow D)" \text{로} \end{array} \right. \end{array}$$

(2) 大體系的 ${}_2C(F \leftarrow M)$ 단계를 그것이 포괄하는 小體系 즉:

형태(F)적 同形の 순서 의미(M)적 同形の 순서

즉 형태(F) 즉 의미(M)

$$\begin{array}{l} \textcircled{1} \left\{ \begin{array}{l} 1) {}_1C(F \rightarrow M) \text{ 단계 : } "D(D \rightarrow {}_1C/{}_2C)"; \\ 2) {}_2C(F \leftarrow M) \text{ 단계 : } "D(D \rightarrow {}_1C/{}_2C)"; \end{array} \right. \\ \textcircled{2} \left\{ \begin{array}{l} 3) D(F \leftarrow M) \text{ 단계 : } "D({}_1C/{}_2C \rightarrow D)" \text{로,} \end{array} \right. \end{array}$$

(3) 大體系的 $D(F \rightarrow M)$ 단계를 그것이 포괄하는 小體系 즉 위 (1)의 小體系와 그 外形이 同一한(*뒤 pp. 131-132 참조) 그러나 위 (2)와는 그 의미 내용이 同一하지 않은, 不連續的/並置的 小體系 즉:

형태(F)적 同形の 순서 의미(M)적 同形の 순서

즉 형태(F) 즉 의미(M)

$$\begin{array}{l} \textcircled{1} \left\{ \begin{array}{l} 1) {}_1C(F \rightarrow M) \text{ 단계 : } "C({}_1C/{}_2C) \rightarrow D(D \rightarrow {}_1C/{}_2C)"; \\ 2) {}_2C(F \leftarrow M) \text{ 단계 : } "D(D \rightarrow {}_1C/{}_2C)"; \end{array} \right. \\ \textcircled{2} \left\{ \begin{array}{l} 3) D(F \rightarrow M) \text{ 단계 : } "D({}_1C/{}_2C \rightarrow D)" \text{로,} \end{array} \right. \end{array}$$

각각 구체화시킨 구체적 表記이다. 이 구체적으로 表記된 公式를 나무그림으로 옮긴 것이 곧 위의 ‘잠재적/일반형태론의 그림’이다. 그리고 이 단계의 그림의 큰 특징은 ‘형태(F)와 의미(M)의 連續性’(‘一般→特殊’)이라는 사실을 끝으로 덧붙여 강조해둘 필요가 있다.

2) 구체적/의미·통사론적/‘特殊→一般’적 언어표현 단계(discours/discourse):

이 단계를 나타낸 나무그림의 특징은 위 1)의 “잠재적/일반형태론적 언어단계”의 그림의 특징인 ‘형태(F)와 의미(M)의 連續性’과는 달리, ‘형태(F)와 의미(M)의 不連續性’이다. 이때 ‘형태(F)의 不連續性’은 ‘連續的 形態(F)’와 그 “外形이 同一함”을 그 특징으로 삼는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다(*바로 위의 ‘(3) 大體系的 $D(F \rightarrow M)$ 단계를 포괄하는 小體系’項 참조). 그 반면에 ‘의미(M)의 不連續性’은 그 “내용의 非同—性”을 그 특징으로 한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가 있었고(*바로 위 (2)와 (3)의 ‘의미적 순서’의 非同—性を 참조), (3)은 (2)의 ‘不連續化’에 의해서 얻어질 수 있음을 또한 파악할 수가 있었다.

이 原理를 그대로 적용함으로써, ‘一般形態論의 나무그림’이 가리키는 ‘형태적 순서+의

미적 순서'의 連續性으로부터 그것의 不連續으로서의 '意味・統辭論의 나무그림'을 얻을 수가 있다. 즉 :

첫째로, '一般形態論의 나무그림'(형태적 순서+의미적 순서)을(不連續/並置的) '하나'로 잡고 그것을 그와 '外形이 同一한' 不連續的인 意味・統辭論의 '형태(F)/글격' 즉 '형태적 순서'로 파악하고,

둘째로, 그에 각각 대응되는 '實質內容' 즉 '意味內容上的 順序'를(不連續/並置的) '다른 하나'로 파악할 수 있다. 이때, 이 '意味內容上的 順序'는, 一般形態論의 나무그림을 구성하는 '形態的 順序'와 '意味的 順序' 중, 不連續 즉 具體에 속하는 '意味的 順序'를 不連續化 즉 非同一化, 더 정확히는 '異(逆)方向化'시킴으로써 얻을 수 있다.

「*주의 위 (3)의 小體系의 '意味上的 順序'가 '形態上的 順序'와 '意味上的 順序'를 '하나로' 보았을 때의 '意味上的 順序'라면, (2)의 그것은 하나가 아니라 '따로 따로'보았을 때의 '意味上的 順序'라 할 수 있다. 즉 (3)의 첫째의 意味上的 順序: " $C(C_1C/2C) \rightarrow D(D \rightarrow_1 C/2C)$ ", 그리고 그에 이은 둘째와 셋째 順序가 形態(C)와 意味(D)를 '하나의 連續'으로 보았을 때의 '意味上的 順序'라면, (2)의 첫째의 意味上的 順序: " $D(D \rightarrow_1 C/2C)$ ", 그리고 그에 이은 둘째와 셋째의 順序는 그 形態(C)와 意味(D)를 '따로 따로/並置的・不連續的으로' 파악했을 때의 '順序'이다. 이때, 이 (2)의 '不連續的, 並置的 意味上的 順序'는 (3)의 첫째의 意味上的 順序를 구성하는 形態(C)와 意味(D)중, 不連續/具體에 속하는 意味(D)를 不連續化/非同一化 즉 '異(逆)方向化'시킴으로써 얻을 수 있다. 즉 (3)의 첫째 順序: " $C(C_1C/2C) \rightarrow D(D \rightarrow_1 C/2C)$ "의 괄호 밖의 "C"와 "D"중, "D" 즉 " $(D \rightarrow_1 C/2C)$ "가 "C" 즉 " $(C_1C/2C)$ "의 자리를 차지함으로써 그 順序가 뒤바뀌고 전자(D)가 후자(C)를 흡수하여 결과적으로 " $C(C_1C/2C)$ "가 없어지고 " $D(D \rightarrow_1 C/2C)$ "가 그 첫째의 으뜸 位置를 차지하는 "C"와 "D"의 順序上的 異(逆)方向化에 의해서 얻어질 수가 있다. 이것은 곧 形態(F 또는 C)와 意味(M 또는 D)를 1) '하나/連續'으로 보느냐 2) '따로 따로/並置的・不連續的으로' 보느냐 라는 二重性으로 특징지어지는 同形(incidence)의 根本的 定義와 그 취지를 함께 한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있는 사실이라 아니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는 一般形態論의 나무그림과 意味・統辭論의 나무그림의 外形이 같아지게 되었다. 그 이유를 다시 위 "(1)/(2)/(3)의 小體系"를 이용해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두 그림의 形態・意味의 外形의 同一性은 위 두 小體系 (1)과 (3)의 同一性에 비교된다. 즉 (1)과 (2)를, (1)을 形態(F)로 (2)를 意味(M)로 하는 하나의(=連續的) '一般形態論의 그림'으로 보고, 즉 (1)로 보고, 그 (1)과 (3)을 比較할 때의 同一性이고,

둘째로, 두 그림의 實質意味內容의 非同一性은 위 두 小體系 (2)와 (3)의 非同一性에 비교된다. 즉 (1)과 (2)를 '하나로(連續的으로)' 보지 않고 '따로 따로(並置的/不連續的으로)' 보았을 때의 (1) 즉 (2)와, (3)의 比較에서의 非同一性이다.

따라서, (3)은 (1)과 (2)를 '하나의 連續的 一般形態論의 그림'으로 본 (1)과 그 '形態・意味의 外形'이 同一하면서도, (1)과 (2)를 不連續的으로 본 (1) 즉 (2)와는 그 '實質意味內容'이 다르다는, 즉 '異(逆)方向的' ('特殊→一般'的: 뒤 p.161 註1 참조)이라는, 二重性

을 갖추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이와 같은 ‘二重性’을 지닌 (3)이 바로 意味・統辭論의 나무 그림의 正體라고 결론적으로 말할 수 있다.

결국으로, 위와 같은 ‘二重性’을 지닌 ‘不連續의 意味・統辭論의 그림’과 ‘連續의 一般形態論의 그림’과의 관계를 앞의 ‘(1)/(2)/(3)의 小體系’를 이용해서 公式으로 표시하면 아래와 같이 될 수 있다:

(1) ${}_1C(F \rightarrow M)$ 단계

(一般形態論的) 同形의 組織

形態(F)

意味(M)

- 1) ${}_1C(F \rightarrow M)$: “ $C({}_1C/{}_2C) \rightarrow D(D \rightarrow {}_1C/{}_2C)$ ”의 테두리 안에 드는 나무그림의 ‘頂點(指示) — 非頂點(被指示)’의 順序;
- 2) ${}_2C(F \leftarrow M)$: “ $D(D \rightarrow {}_1C/{}_2C)$ ”의 테두리 안에 드는 나무그림의 ‘頂點(指示) — 非頂點(被指示)’의 順序;
- 3) $D(F \rightarrow M)$: “ $D({}_1C/{}_2C \rightarrow D)$ ”의 테두리 안에 드는 나무그림의 ‘頂點(指示) — 非頂點(被指示)’의 順序.



(意味・統辭論的) 同形의 組織

形態(F)

意味(M)

*위 ‘一般形態論’ 1)/2)/3)의 意味(M)의 公式과 外形이 同一한 公式의 테두리안에 드는 나무그림의 ‘頂點(指示) — 非頂點(被指示)’의 順序.

*위 ‘一般形態論’ 1)/2)/3)의 公式과 內容이 同一하지 않은 (異<逆>方向의) 公式의 테두리안에 드는 나무그림의 ‘頂點(指示) — 非頂點(被指示)’의 順序.

이것을 더 간단히 표시하기 위해서 意味(M)의 公式 1)은 괄호밖의 것(C 및 D)을, 2)와 3)은 괄호 안의 것(“ $D \rightarrow {}_1C/{}_2C$ ” 및 “ ${}_1C/{}_2C \rightarrow D$ ”)을 취하되, 순서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1”과 “2”를, 一般形態論과 意味・統辭論에 공통되는 ‘連續性/不連續性’은 異(逆)方向의 화살표시 ‘ \rightarrow/\leftarrow ’를, 그 양자(形態論/統辭論)를 구별하는 ‘連續性/不連續性’은 위 화살표시 위에다 ‘ $\leftrightarrow/=$ ’ 표시 (‘ $\leftrightarrow/\leftarrow$ ’과 ‘ $\leftrightarrow/\rightarrow$ ’)를 사용하여 公式으로 나타내면 (“ \Rightarrow ”표시는 ‘不連續化’를 나타냄) :

(一般形態論的) 同形의 組織

(意味・統辭論的) 同形의 組織

形態(F)	意味(M)		形態(F)	意味(M)
1) ${}_1C(F \rightarrow M)$	“ $C \leftrightarrow D$ ” 1 2	\Rightarrow	“ $C \Rightarrow D$ ” 1 2	“ $D \Rightarrow C$ ” 1 2
2) ${}_2C(F \leftarrow M)$	“ $D \leftrightarrow {}_1C/{}_2C$ ” 1 2	\Rightarrow	“ $D \Rightarrow {}_1C/{}_2C$ ” 1 2	“ ${}_2C/{}_1C \Rightarrow D$ ” 1 2
3) $D(F \rightarrow M)$	“ ${}_1C/{}_2C \leftrightarrow D$ ” 1 2	\Rightarrow	“ ${}_1C/{}_2C \Rightarrow D$ ” 1 2	“ $D \Rightarrow {}_2C/{}_1C$ ” 1 2

(연결화/중결화)라는 同形이, ‘잠재적 분석적/연속적 同形적 조직’ (mécanisme synaptique analysé/continu) 안에서 차지하는 ‘위치’ (position)를 밝히고, 아울러서 ‘구체적(비분석적/불연속적) 同形적 조직’ 안에서 차지하는 ‘위치’ (position)도 밝히고자 한다.

그러면 현대 韓語의 “잠재적(분석적/연속적) 조직”을 실제 언어의 예로써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주의 : * (I)/(II)/(III) : 大體系 ; (1)/(2)/(3) : 小體系를 표시함 ; 각각의 둘째줄 公式은 拙稿 (1991/1992), p. 135/p. 54에 의함.

* 아래 略字의 內容은 모두 ‘形態위주’의 ‘意味·內容’을 가지고 사용되고 있음에 주의.

* 아래 公式의 例의 “註”는 뒤 p. 161 이하를 참조.

Vs=주관동사	ê=“이다”〈指定詞〉	Q=의문
Vd=記述동사	Ê=“있다”〈存在詞〉	R=대답
Vact=동작동사	(φ)=매듭 ‘零’	Rq=反問
Ax=조동사	(1)=매듭 ‘有’	Pers. act.=行動 人稱
Axé=被조동사	f=屈折形態	tu/je=屈折人稱
# =不在적 연속적 同形=불연속적/質料적 同形=“빈칸”		

(I) **F→M** 단계 1連續(1C)의 同形(synapse)

(=1内部的 同形)

同形の 順序

(1) **F→M**: (1)

$$\left\{ \begin{array}{l} 1-1) \text{ }_1\text{C: “}_1\text{U} - (1\phi) \rightarrow (2\text{S} \rightarrow 1\text{S}) - (2\phi) \rightarrow 2\text{U”} \\ 1-1) \text{ }_1\text{C: “}_1\text{Q} - (1\phi) \rightarrow (2\text{R}_q \rightarrow 1\text{R}_q) - (2\phi) \rightarrow 2\text{R”} \end{array} \right.$$

Q=지시사=-야(이 아) ?¹⁾

R=지시사=φ

(₁R_q)=(피지시사)=(φ)

(₂R_q)=(피지시사)=(φ)

$$\left\{ \begin{array}{l} 1-2) \text{ }_2\text{C: “}_2\text{U} - (2\phi) \rightarrow (1\text{S} \rightarrow 2\text{S}) - (1\phi) \rightarrow 1\text{U”} \\ 1-2) \text{ }_2\text{C: “}_2\text{R} - (2\phi) \rightarrow (1\text{R}_q \rightarrow 2\text{R}_q) - (1\phi) \rightarrow 1\text{Q”} \end{array} \right.$$

R=지시사=-어/-아.

Q=지시사=φ

(₁R_q)=(피지시사)=(φ)

(₂R_q)=(피지시사)=(φ)

$$\left\{ \begin{array}{l} 2-1) \text{ D: “}_1\text{U} - (1l) \rightarrow (2\text{S} \cdot 1\text{S} \rightarrow 1\text{S} \cdot 2\text{S}) - (2l) \rightarrow 2\text{U”} \\ 2-1) \text{ D: “}_1\text{ê} - (1l) \rightarrow (2\text{Ê} \cdot 1\text{Ê} \rightarrow 1\text{Ê} \cdot 2\text{Ê}) - (2l) \rightarrow 2\text{ê”} \end{array} \right.$$

₁ê=(呼稱〈格〉)지시사=-야 !²⁾

₂ê=지시사=φ

(₁Ê)=(피지시사)=(φ)

(₂Ê)=(피지시사)=(φ)

$$\begin{cases} 2-2-1) {}_1C: " {}_1U - ({}_1l) \rightarrow ({}_2S \cdot {}_1S \rightarrow {}_1S \cdot {}_2S) - ({}_2l) \rightarrow {}_2U " \\ 2-2-1) {}_1C: " {}_1tu - ({}_1l) \rightarrow ({}_2je \cdot {}_1je \rightarrow {}_1je \cdot {}_2je) - ({}_2l) \rightarrow {}_2je " \end{cases}$$

tu = (自問적) 지시사 = -나/-가 ?

je = 지시사 = ϕ

(₁je) = (피지시사) = (ϕ)

(₂je) = (피지시사) = (ϕ)

$$\begin{cases} 2-2-2) {}_2C: " {}_2U - ({}_2l) \rightarrow ({}_1S \cdot {}_2S \rightarrow {}_2S \cdot {}_1S) - ({}_1l) \rightarrow {}_1U " \\ 2-2-2) {}_2C: " {}_2je - ({}_2l) \rightarrow ({}_1je \cdot {}_2je \rightarrow {}_2je \cdot {}_1je) - ({}_1l) \rightarrow {}_1tu " \end{cases}$$

je = 지시사 = -어/-아 (대답적 지시사)

tu = 지시사 = ϕ

(₁je) = (피지시사) = (ϕ)

(₂je) = (피지시사) = (ϕ)

₂連續(₂C)의 同形

(= ₂內部的/外部的/不連續 1度(₁D)의 同形)

同形的 順序

(2) **F ← M:** (2)

$$\begin{cases} \# \\ (= 不在的 連續) \\ 1) D: " {}_2U - ({}_2l) \rightarrow ({}_1\# \cdot {}_2S \rightarrow {}_2S \cdot {}_1\#) - ({}_1\#) \rightarrow {}_1\# " \\ 1) D: " {}_2Vd - ({}_2l) \rightarrow ({}_1\# \cdot {}_2\hat{E} \rightarrow {}_2\hat{E} \cdot {}_1\#) - ({}_1\#) \rightarrow {}_1\# " \end{cases}$$

Vd = 지시사 = -지 (肯定 대답 期待의 지시사)

= 지시사 = ϕ

(E) = (피지시사) = (ϕ)

(#) = (피지시사) = (ϕ)

$$\begin{cases} 2-1) {}_1C: " {}_2U - ({}_2l) \rightarrow ({}_1\# \cdot {}_2S \rightarrow {}_2S \cdot {}_1\#) - ({}_1\#) \rightarrow {}_1\# " \\ 2-1) {}_1C: " {}_2Axé - ({}_2l) \rightarrow ({}_1\# \cdot {}_2f \rightarrow {}_2f \cdot {}_1\#) - ({}_1\#) \rightarrow {}_1\# " \end{cases}$$

Axé = 지시사 = -어/-아 (대답적 지시사)

= 지시사 = ϕ

(f) = (피지시사) = (ϕ)

(#) = (피지시사) = (ϕ)

$$\begin{cases} 2-2) {}_2C: " {}_1U - ({}_1l) \rightarrow ({}_2\# \cdot {}_1S \rightarrow {}_1S \cdot {}_2\#) - ({}_2\#) \rightarrow {}_2\# " \\ 2-2) {}_2C: " {}_1Ax - ({}_1l) \rightarrow ({}_2\# \cdot {}_1f \rightarrow {}_1f \cdot {}_2\#) - ({}_2\#) \rightarrow {}_2\# " \end{cases}$$

Ax = 지시사 = -냐고 (반문적 지시사)

= 지시사 = ϕ

(f) = (피지시사) = (ϕ)

(#) = (피지시사) = (ϕ)

不連續(D)의 同形
 (=外部的/不連續 2度(2D)의 同形)
 同形의 順序

(3) F → M: (3)

{ # (不在의 連續)

{ 1-1) ₁C: “₁U - (₁l) → (₂# • ₁S → ₁S • ₂#) - (₂#) → ₂#”
 { 1-1) ₁C: “₁l/2 pers. - (₁l) → (₂# • ₁V_s → ₁V_s • ₂#) - (₂#) → ₂#”

₁l/2 pers. = (疑問引用 • 連結의) 지시사 = -냐고 (하더)
 # = (대답 引用 • 連結의) 지시사 = -어 / -아 (하더)
 (V_s) = (<위의 終結적> 피지시사) = (하더)
 (#) = (<위의 終結적> 피지시사) = (하더)

{ 2-1) ₂C: “₂U - (₂l) → (₁# • ₂S → ₂S • ₁#) - (₁#) → ₁#”
 { 2-1) ₂C: “₂3e pers. → (₂l) → (₁# • ₂V_d → ₂V_d • ₁#) - (₁#) → ₁#”

3° pers. = (대답 引用 • 連結의) 지시사 = -어 / -아 (하더)
 # = (疑問引用 • 連結의) 지시사 = -냐고 (하더)
 (V_d) = (<위의 終結적> 피지시사) = (하더)
 (#) = (<위의 終結적> 피지시사) = (하더)

{ 2) D: “₁U - (₁l) → (₂# • ₁S → ₁S • ₂#) - (₂#) → ₂#”
 { 2) D: “₁pers.act. - (₁l) → (₂# • ₁Vact. → ₁Vact. • ₂#) - (₂#) → ₂#”

pers.act. = (<疑問-대답>의 並置적 引用 • 連結語尾形) 지시사 = -지 (알겠)
 # = (<疑問-대답>의 並置적 引用 • 連結語尾形) 지시사 = 지 (모르겠)
 (Vact.) = (<위의 終結語尾形> 피지시사) = (-지 알)겠
 (#) = (<위의 終結語尾形> 피지시사) = (-지 모르)겠

(II) F ← M 단계 ₁連續(₁C)의 同形
 (= ₁内部的 同形)
 同形의 順序

(1) F → M: (1)

{ #
 (=不在의 連續)

{ 2-1) D: “₁U - (₁l) → (₂S • ₁S → ₁S • ₂S) - (₂l) → ₂U”
 { 2-1) D: “₁ê - (₁l) → (₂Ê • ₁Ê → ₁Ê • ₂Ê) - (₂l) → ₂ê”

₁ê = (主觀적 連結 • 時制語尾形) 지시사 = -겠 (다), -고있 (다), -았/였 (다), -ㄴ/는 (다)...

₂ê = (非主觀적 連結 • 時制語尾形) 지시사 = -겠 (다), -고있 (다), -았/였 (다), -ㄴ/는 (다)...